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은



##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1. 이 강산 밝히는 해빛처럼  
누리에 그 미소 찬란하다  
인민위해 바치신 어버이사랑  
무궁토록 빛을 뿌린다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2. 정의와 진리의 앞길 밝힌  
선군의 그 자욱 불멸하다  
조국위해 쌓으신 위대한 업적  
후손만대 길이 빛나리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3. 정의와 진리의 앞길 밝힌  
선군의 그 자욱 불멸하다  
조국위해 쌓으신 위대한 업적  
후손만대 길이 빛나리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태양의 모습으로

## 영 원 한 태양의 력사

이 나라 인민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때로부터 날과 날이 흘러 어느덧 100일이 되어온다. 청년 전력보다도 같은 비보에 접한 인민이 대성통곡하며 몸부림친 그 낮과 밤이며 추모와 예도의 물결이 끊없이 끊이치던 절통한 영결의 날들이 눈앞에 선히 어려온다.

100일이란 력사의 순간에 지나지 않지 않거니와 그 나날은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께서 겨레의 마음속에 생전의 모습으로 계신 나날이었고 그이의 불멸의 사상과 위업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즐기차게 호고있음을 내외에 보여준 영생실록의 한페이지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전생애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누리며 빛내시고 겨레에게 광명한 미래를 펼쳐주시는 영원한 태양의 력사이다.

위대한 사상과 정치철학, 비범한 령도실력과 교매한 덕망을 지닌 령도자만이 민족민중의 고귀한 유산으로 되는 거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태양의 빛과 열로 민족의 앞길, 시대의 진로를 밝혀주고 자수와 정의의 정치신념과 활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끄셨으며 한없이 넓고 교매한 덕망으로 인민을 보살피신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다.

민족의 성지 백두산에서 광명성으로 탄생하신 장군님의 회광과 포부는 애국애족이었고 민족앞에 다진 맹세는 세상만방에 조선을 빛내이시는 것이었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그이의 삶의 목표였고 보람이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민족의 유일무이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내이시었고 선군의 기치높이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끊임없는 제재와 압력,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거부시며 조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셨다. 지난 세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존엄한 나날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공화국을 세계적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만드시어 인민이 대대손손 자주적으

로 살아갈수 있는 억년기를 마련하신분이 장군님이시다. 장군님께서 한평생 야전북차령으로 찾고찾으신 조국방선초소들로부터 옥야천리 펼쳐진 협동농, 동음높은 공장과 건설장, 문화의 전당들, 상업봉사지들과 인민들의 주력마차에는 조국수호와 강성국가건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바친신 그이의 로고의 자욱과 사랑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다.

지금도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져있는 좁잠과 꿇기밭, 야전리밭, 달리는 집무실, 부정차벌차행군, 빨치산식강행군, 삼복철강행군과 같은 일화들은 그이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눈물겹게 전하고있다.

인간으로서, 령도자로서 체합

할수 있는 온갖 교생은 다 겪고 만단시련을 헤치시며 온넛을 강그리 불태우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조국땅우에 반만년민중사에 일찌기 없었던 풍성번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새 세기 산업혁명의 조성—CNC공업화, 자립경제의 무취기 등을 담보하는 주체철생산체계, 정공업발전을 추동하는 비날론대경사,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주체비료곡물, 국산화를 실현한 마그네사코팅카공업, 조선의 속도로 건설된 최첨단의 인제들을 비롯한 기원비적창조물들과 주체적인 생산체계들, 도처에 일떠선 현대적인 생산기지와 화려한 선경 등 다계단사변과 기적들은 조국

과 인민에 대한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과 무한한 헌신의 대장정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장군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우리 인민을 하무빨리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려나가는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었고 그 길에서 정력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활로였다고 하시며 초강도현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었다. 결승하는 정심육체적과로와 병마도 초인간적인 의지로 이겨내시며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야전벌차에서 순직하신 장군님이시었다.

조국과 민족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절세의 애국자의 거룩한 행로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그이께서 혁명생애의 전기간 지구돌레를 근 17바퀴를 돈것

과 맞먹는 연 167만 4 610여리의 로정을 거쳐 1만 4 290여개의 단위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오늘 우리 조국이 지닌 높은 존엄과 인민이 누리는 보람찬 삶 그리고 이 땅우에 펼쳐진 모든 재부와 창조물들은 하나하나 다 장군님의 거룩한 존함과 결부되어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6.15시대의 탄생도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 것이다.

한평생 민족의 자주와 존엄, 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위해 쌓으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그이께서는 태양의 모습으로 오늘날도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은 령도의 계승문제에 달려있다.

애국위업수행에서 근본인 령도의 계승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신 것은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업적 중의 가장 큰 업적이다.

은 겨레가 또 한분의 민족의 태양으로, 아버지로 신뢰하며 따르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 다재다능한 령도실력, 인민에 대한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 회세의 위인이시다.

그이께서는 장군님과 함께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령도자, 백두산형의 위인이시다. 최후의 기적과 통일 땅의 최후의 전방은 출중함 령도실력을 지니신 그이의 위인적품모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조국

수호와 강성국가건설의 대고조적 전장에서 공헌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의 《단숨에》의 정신과 기질은 그이의 령도방식과 령군술이 낳은것이다.

민족의 대국상후 진행되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주제 105방포사단과 판문점을 비롯한 수많은 군부대와 초소들에 대한 현지시찰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철옹성같이 지켜갈 굳은 의지에 대한 표명으로 된다.

그이의 령도가 있기에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이 더욱 빛을 뿌리고있으며 위대한 생활철학을 발휘하고있다.

출중한 자질과 비범한 령도품모를 지니신 그이의 품격에 대해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나는 김정은동지자 있었기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셨다.

6.15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 상임대표 리희세동포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국가운영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인민들과 동고동락하시며 강성한 나라건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어 굳건한 리더를 마련하셨다고 하시며 조국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강성국가를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 나갈것이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토론했다.

로씨야신문 《빠프리오트》책임주필은 김정일 령도자께서 계시어 조선인민은 위대하고 존엄높은 인민으로, 조선은 당당한 위성제작발사국, 승리만을 아는 나라로 자랑될지 못하였고 강성국가의 문어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분께서는 비록 서거 하셨지만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어 강성국가건설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동경을 표시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꼭 같은 신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민족자주위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태양의 력사는 영원히 이 땅에 흐를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 절세 위인의 불멸의 통일업적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만대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위인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상자이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민족분별로 우리 겨레가 겪는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었다.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들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의 심중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 한치봉아래 자주적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겨레의 모습만이 자리잡고있었다. 언제나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남해바다가를 거닐고 그날이 그러하고 조국이 통일되어 북반부 인민들이 한나산 백두담에도 올라가고 남반부인민들이 백두산천지에도 올라가보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절절하게 말씀하셨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여러차례 판문점에도 숭고한 통일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주제85(1996)년 11월 24일,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선언비밀앞에서 오래도록 곁을 멈추시었다.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통일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추억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뜻대로 분별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실것은 결심을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발전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식화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시었다. 애국애족의 내용단과 통일의지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고갈 문을 열어가는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불신과 대결의 긴긴 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 화회로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민족사적사변이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우리 겨레에게 6.15공동선언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래동안 굳게 닫혀있던 북과 남 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길, 바다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조의 통일대화가 도도히 흐르는 격동적인 사변들이 펼쳐졌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남사이에는 계층별 통일대회들과 상봉모임, 도론회, 민족통일대추진 등 민족의 대회합잔치가 성대히 치러져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고 겨레의 자주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경제인, 언론인, 문화인, 종교인 할것없이 각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북과 남을 오가며 우리 민족은 피로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력사도 하나이며 가슴뜨겁게 절결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강철도 녹일 뜨거운 동모에 평양을 찾아온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로 마다듯이 손잡아 이끄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던 주제97(2008)년 9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매의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하시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라는 데 대하여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통일의 대강을 밝혀주시으로써 우리 민족은 보다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높이 안팎의 분별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확실성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6.15시대의 지나온 나날들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는대로 하면 통일강국을 반드시 이룰수 있다는 철리를 심장에 새겨안았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이렇듯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로 통일을 이룰것으로 굳게 믿는 우리 겨레에게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고 곁잡힌 피로를 무시지 못하신채 위대한 심장의 고통을 멈추시었다.

남조선의 수많은 정당, 단체들과 광범한 각계층은 민족의 대국면봉후의 헌신과 로고로 통일을 이룰것으로 굳게 믿는 우리 겨레에게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발표하시어 조국통일의 리적표를 마련해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높이 찬양하였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여

무성하게 푸른 잎새를 펼친 아름다운 거목은 억센 뿌리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 공화국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혁신적정책들은 인민의 부리준진을 관철의 념원으로 안으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끊임없는 헌신의 길을 걷고계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은 나라에 타번지는 세계 산업혁명의 거센 불길, 폭포처럼 쏟아지는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철의 기둥들과 나라의 대규모화학공업기지들, 원혼을 비롯한 조국명 방방곡곡에 시원스레 펼쳐지는 풍요로운 과수의 바다...

이 모든 전변들은 아버지장군님께서 위대한 애국헌신으로 안아오신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로라를 타고 줄줄이 흐르는 비날론때심유를 보시며, 무드기 쌓인 하얀 비날론을 만져보고 또 만져보시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얼마나 만족해하시었는가.

그날 그이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다.

오늘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 비날론을 보니 그 만족감을 어떻게 표현하였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짧

은 기간에 기업소가 현대적으로 꾸려지고 비날론이 쏟아져나오게 된것은 원자탄을 폭발시킨것과 같은 특대형사변이며 온 나라의 대경사이라고.

나라의 경공업발전을 위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생명선으로 보시고 한해에도 이 공장을 여러차례나 찾으면서 아버지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비날론공업발전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천만고생과 바꾼 비날론앞에서 인민들은 오열을 더치고 그 리음의 눈물을 닦으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이룩해놓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전설처럼 노래하고있다.

오늘 세계적으로 불 때 심각한 금융위기가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처지를 위협하고 1%의 가진자, 특권층을 반대하는 99%의 시위가 그칠새 없지만 자체의 막강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조국은 그 어떤 파동에도 끄떡없이 강성국가의 높은 명마루를 향해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걸음이 한걸음 더디지면 그만큼 조국의 전진이 더디게 된다고, 날씨가 보아 가면서 편안한 걸음을 할수 없다고 하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랑의 길우에서 명절날, 생신날도 맞

으시고 그 길우에서 순직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받은 자기 땅에 불이 고 님은 세계를 내다보면서 지식경제시대를 떠메고나갈 강력한 인재집단이 자라나고 조국은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CNC기술의 명맥을 틀어쥘 나라로 위용될지 못하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주민주》는 《북의 주민복지정책은 높은 생산성을 이룩하고 강성대국건설을 더욱 빨리 다그쳐나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으며 그것이 다시금 복지혜택을 낳는 선순환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중진의 공식으로 예측할수 없는 발전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다.》고 천명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경제강국건설의 굳건한 토대가 있기에 조국은 머지않아 다가오는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를 또다시 우주에 쏘아올리는 경사를 맞게 될것이다.

지식김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그 어떤 광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법이다. 공화국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산인 튼튼한 자립적경제를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여 이 땅우에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라광철



# 겨레와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 로 동 선 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경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을 함께 모시었다.

3월 25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서거하신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비애의 곡성이 강산을 진감했던 지난해 12월의 겨울은 가고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봄이 왔지만 흰눈이 평평 쏟아지는 100여리 연도에서 아버이 김정일장군님과 영결하던 때를 잊을수 없다. 장군님은 절대로 가실수 없다고, 가시면 안된다고 목에 부르며 인민의 울음바다를 헤치시며 그이께서는 인민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짓고계시었다. 금시라도 두 팔을 벌려 온 겨레를 따사로 온 한복에 다정히 안아주시었다.

6.15자주통일시대를 개척하시고 이 땅우에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아버지장군님, 참기 어려운 정신육체적 고통을 초인간적 의지로 이겨내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도 인민의 마음에 그들이 절세와 영결의 길마저 그렇게 웃으며 가시었다.

아니 장군님은 가지지 않

## 위 인 과 영 생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더 가까이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사랑을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시며 한식술의 친근한 아버이가 되시었다.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생존하시던 그때와 똑같이 장군님을 목매며 부르며 보고드리고 맹세도 다지고 금수산태양궁전 명에위병대의 영접례식도 거행하는 현실을 보며 생각한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과 체취, 숨결과 넋이 조국강산에 그대로 어려있음을 실증해주는 것이다.

예도의 100일간의 절세위인의 태양의 모습을 더욱 깊이 간직한 흙모의 나날이었고 무한한 그리움속에 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더욱욱 굳게 다져진 총정의 나날이었다.

인간은 태고적부터 영생을 기원했고 그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

늘 우리가 말하는 절세위인의 영생은 래세에 대한 꿈이나 승천, 부활과 같은것이 아니다. 장군님은 위대한 사상과 불멸의 업적, 숭고한 덕망으로 영생하신다. 조국과 인민, 겨레를 위해 바치신 위인의 고귀한 생은 어제 오 오늘도 래일도 세월이 흘러도 영원하다. 오늘 우리 겨레는 바로 그러한 절세위인의 영생을 현실에서 또다시 체험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소망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와 영웅칭호를 드리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총서인 《김정일전집》을 발행하고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 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사진전시회와 특별토론회

를 비롯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온 누리에 태양의 영생송가가 울려 퍼진다.

공화국에 펼쳐진 가슴뜨거운 영생의 화폭에는 민족의 애비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찬세만세 영원토록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 비껴있다.

오늘의 이 경이적인 현실자체가 그이께서 가진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더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이장군님은 영생하신다는것을 흥변으로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박단희

민족의 위대한 아버이를 잃은 크나큰 슬픔속에 몸부림치던 12월의 그날로부터 100일이 되어오는 이 시각 이 나라 인민의 눈앞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쉬임없이 걸으신 전선시찰의 길이 역력히 어려온다. 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 인민의 행복을 지켜 선군경도의 첫날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전선시찰의 길에 계시었다. 선군이란 말을 들으면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이 이 나라에 도착했던 고난의 시기이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수호를 위해 장군님께서 찾으신 초소들, 념으신 험한 령, 전선시찰의 길이다. 민족의 대국상을 기화로 더욱욱

## 전 선 시 찰 의 길

민족의 위대한 아버이를 잃은 크나큰 슬픔속에 몸부림치던 12월의 그날로부터 100일이 되어오는 이 시각 이 나라 인민의 눈앞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쉬임없이 걸으신 전선시찰의 길이 역력히 어려온다. 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 인민의 행복을 지켜 선군경도의 첫날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전선시찰의 길에 계시었다. 선군이란 말을 들으면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이 이 나라에 도착했던 고난의 시기이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수호를 위해 장군님께서 찾으신 초소들, 념으신 험한 령, 전선시찰의 길이다. 민족의 대국상을 기화로 더욱욱

초인간적인 헌신과 로고가 깃든 예국의 장정우에서 사전에도 없는 쪽잡과 꿇기밥, 야전복과 야전차, 열차집무실이라는 시대어가 생겨났고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런 일화들도 무수히 전해졌다. 전지도 아닌 평화시기에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쪽잡으로 한밤을 지새우시고 꿇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전선길에서 날과 달을 보내신 분, 참기 어려운 육체적고통을 초인간적인 의지로 이겨내시며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이었던 한달 남짓한 기간에도 무려 10여차례나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시찰하시며 강철의 정예대로, 무적의 대군이 있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불패의 보루로 영원히 솟아 빛날것이라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시었다. 위대한 선군의 아버이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의 최전방을 초강도강행군으로 달리시며 민족자주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기에 조국과 민족의 존엄이 굳건히 수호되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고조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있고있는것이다. 위인이 걸어온 길은 위인만이 이어갈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애국의 길, 전선시찰의 길은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도자 이신 김정일최고령도자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는 올해 들어와 년초부터 그 명칭만 불러보아도 장군님의 체취와 체온이 느껴지는 조선인민군 군위서 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고 평시에 훈련을 잘하여야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시에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을 다할수 있

다고 인민군장병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에 대해 미국과 일본, 남조선의 언론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을 고수할것이라는 명백한 에세지를 전하는 동시에 김정은령도자의 정치방식을 시사해준다. 김정은령도자의 련이온 군부대시찰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유훈인 선군로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것이라고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그후 적아가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판문점, 서남전선지구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4군단사령부판하 군부대들, 초도방어대며 조선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 등 인민군초소들을 련이어 찾으시며 인민군장병들에게 불의의 공격을 노리는 원수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철벽으로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시었고 병사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극진히 보살피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최고령도자의 전선시찰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장군님께서 지켜주시고 빛내주시는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하고 부강한 조국을 일떠세우며 절세위인들께서 생전에 것처럼 념원하시던 통일을 안아오시기 위한 애국의 장정이다. 온 나라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최고령도자의 전선시찰의 모습에서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손격도 령도풍모도 지어 품세, 걸음새까지도 장군님그대이신 또 한분의 철혈명장을 뵈옵고 감격을 금치 못해하고있으며 성스러운 그 길이 있어 조국통일과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질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명금룡

##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

해 외 동포들과 외국인들이 걱정대로 사회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비분에 몸부림치던 그날부터 위대한 아버이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속에 날과 달이 흘러 어느덧 100일이 다가오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호모심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속에서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남승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의 한평생은 조국의 강성부흥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오신 애국헌신의 한생이었다. 아버이장군님의 선군장정에 의해 사회주의수호전의 위대한 승리가 이뤄지고 강성대국건

설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은 길이 빛날것이며 그이의 성스러운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을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 해외동포들과 함께 계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최수봉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정일장군님 같은 위인은 동시대고금 어디에도 없다. 그이는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명도력, 숭고한 품모를 지니신 위대한분이다. 그이께서는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제일본조선인의 학회회대

표단 단장 김영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게 하시었다. 조국의 현실은 령도자가 위대하면 나라도 위대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도 빛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위화(장울화)동지의 아들 장진취엔(장금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이께서는 생전에 우리를 따뜻이 보살피주시었다. 그이의 사랑과 은정을 평생도록 잊을수 없다. 절세의 위인 이신 김정일장군님은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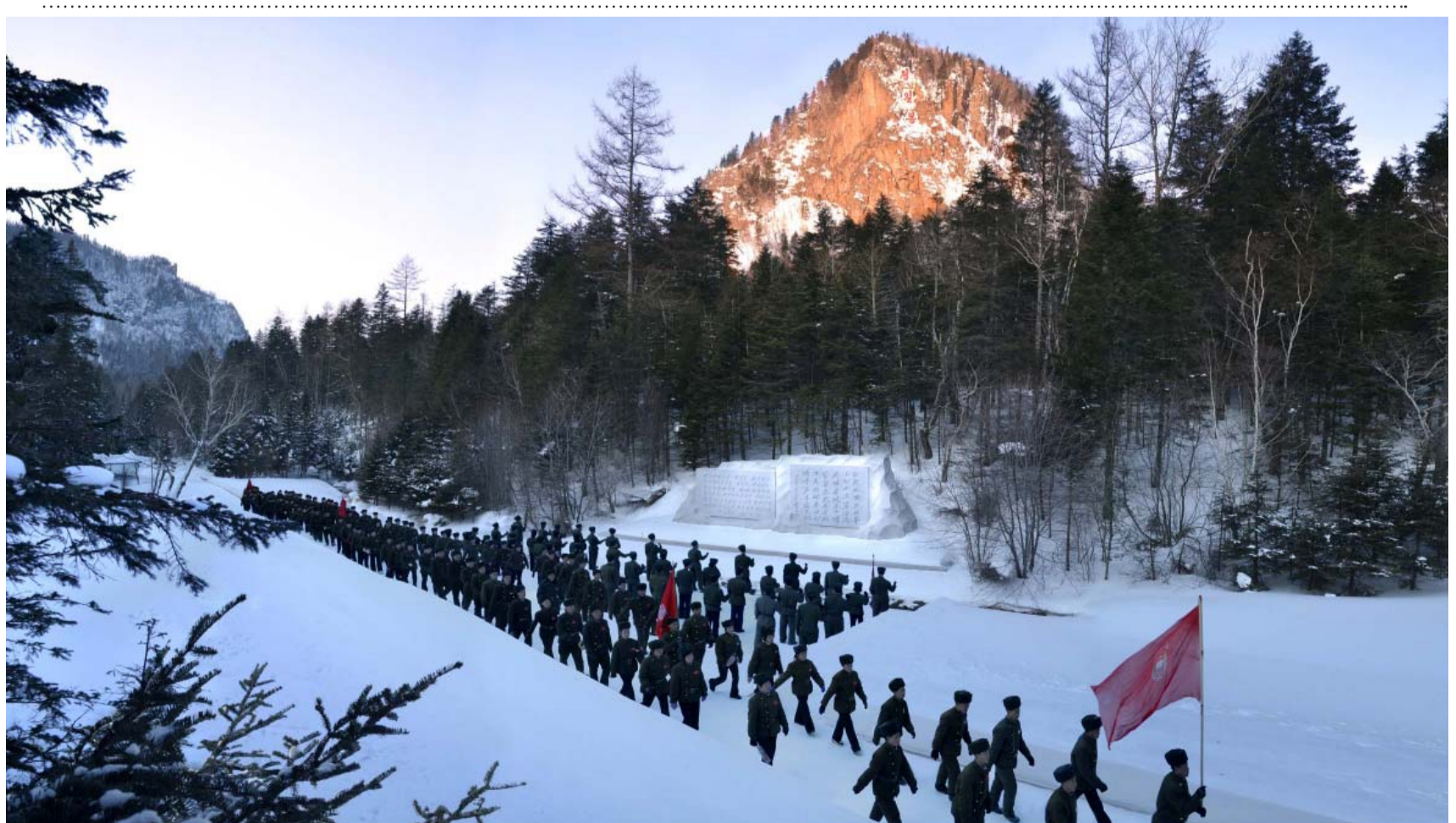
중국항일혁명렬사영고자 저우바오중(주보중)의 딸 저우위(주위)는 흥분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으시고 모든것을 그에 복종시키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을 가장 존엄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그이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성취할것이다. 본사기자

## 전쟁의 불구름을 막아주시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반미자주와 사회주의강경보루인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경제봉쇄책동으로 매달리고있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보수패당의 무모한 대결소동으로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검은 구름이 더욱 짙게 떠돌고있다. 이런 속에서 조선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선군으로 마련된 공화국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기 때문이다. 평화는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평화는 오직 자기를 지킬수 있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선군으로 군력을 최대로 강화하여 이 땅에 밀려드는 전쟁의 불구름을 막아주고 민족의 안안을 지켜주시분은 바로 선군 태양 김정일장군님이시다. 그이가 아니시였다면 우리 겨레는 몇번도 더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겪었을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외환경이 엄혹했던 90년대 중반기 그 누구도 민족의 안전을 담보해줄수 없는 맹목한 국제적현실을 깊이 통찰하시고 력사에 없는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예

롭게 지켜내시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현이온 자연재해로 조국과 인민앞에 시련이 닥쳐왔던 그때 장군님께서 사랑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시고 선군장정의 길을 앞장서 헤쳐나가지였다. 아찔한 오성산의 칼벼랑길에서 미끄러져내리는 야전차를 어깨로 미시고 때로는 사나운 풍랑도 맞받아 헤쳐시며 그이 걸고걸으신 선군의 천만리길은 그대로 겨레의 운명과 잇닿은 조국수호, 평화수호의 강행군길이었다. 그 누가 내 마음 물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부르시며 선군의 의지를 굳히시고 때로는 한공기의 강병이 죽을 드시며 시련을 헤쳐가신 장군님의 로고를 우리 겨레는 천년세월이 흐른대도 결코 잊을수 없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다고, 시대가 전진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눈물나는 길을 헤쳐왔는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난날 것처럼 멸시당하던 우리 민족이 오늘날처럼 세계에 빛을 뿌리고 그 존엄을 떨치게 된것은 위대한 정치방식인 선군정치의 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정녕 선군이 아니었다면 삼천리강토는 이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전쟁의 참화를 면치 못했을것이며 부과 남은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당해야 했을것이다. 선군은 단순히 총대이기전에 평화의 보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패의 선군정치로 외세의 북침선제공격을 비롯한 그 어떤 전쟁책동에도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해주심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가 수호되고 이 땅에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된것이다. 남조선인민들도 《강위력한 선군정치로 민족의 안녕과 삼천리강토의 안전, 평화를 수호해나가는 김정일장군님이시어야말로 위대한 선군령장》, 《선군정치가 아니었다면 이 땅은 이미 전란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우리 민족은 전란의 희생자가 되었을것이다.》고 장군님의 평화수호업적을 칭송하고있다. 지금 남녘땅에 세계를 굽이치고있는 선군지지열풍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으로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시고 평화를 수호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7천만 온 겨레의 다함없는 호모의 분출이다.



백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갈 일심의 대오 끝없이 흐른다.



# 따사로운 그 품이 못건디게 그림습니다

내 마음 오늘도 야전철차 앞에 서있는듯 사무치는 그리움에 이 가슴 미어지거니 오늘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  
— 우리 장군님 이제 꼭 오실거야 현지지도길에 쌓인 피로 더 빠지고 더 빠르게 돌아 오시려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려

처으신 그이의 천만포구가 가슴을 쳐와 걱정의 눈시울을 적시고있다. 이 땅의 남편로소 어느 누구든 만나보라. 그러면 아버지장군님과 영원히 한 피줄을 잇고 사는 천만아들 딸들의 모습을 감동깊게 볼 수 있다.  
그 누구의 가슴속에서나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원동력으로 하여 뿜어내는 심장의 새한 박동소리

그리움의 정으로 풀을래야 풀을수 없이 맺어진 혼연일체의 위력은 인민의 마음속에서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정을 빼앗으려 악착스럽게 달려드는 원수들에게 대항 중오와 복수의 감정이 활화산으로 타오르는 오늘 더욱 강화되고있다.  
역적의 무리들이 민족의 최고존엄까지 중상모독하며 피를 물고 날릴 때에도, 장군님과 영원히 한시술을 이룬 천만자식들을 침략전쟁 연습의 총포성으로 놀래워보려고 여러차례

인민의 만복 꽃피우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요 리상이었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의 온몸과 숨결을 깡그리 다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  
가슴터치는 민족대국상의 나날 장군님의 령전앞에서 그이의 유훈을 하루빨리 실현할 불타는 신념의 맹세를 다친 공화국인민들은 생명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산악같이 일떠섰다.  
— 불타는 애국의 정신력으로 부강조국의 래일을 앞당기자.

## 그이의 유훈을 받들어

은 중대보도이후 5일동안에 수백만방조제를 날바다우에 건설하여 착공후 최고기록을 돌파하였고 각지 수력, 화력발전소들에서도 발전기가동세를 늘리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여 전해의 같은 시기에 비해 전력생산량을 50만kw이상 늘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국상의 나날에 타고르 들끓는 생산열의는 세해에 들어와 더욱 고조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새해공동사설을 펴내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각지 근로자들이 생산동무의 불꽃을 세차게 피어올렸다.  
새해 정초부터 15만산대 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철정광생산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돌파

구를 열어놓은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노동자들의 투쟁소식에 고무된 농업부문 근로자들도 새해 첫 열풍동안에 생산한 400여만의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어 시작부터 기세를 올렸다.  
혁신의 불길은 산지통나 무생산전투를 분때있게 벌려 계획보다 2만㎡이상의 통나무를 더 생산해낸 립업 부문에서도, 통이 큰 목표 밑에 1호, 2호, 3호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내밀어 1월의 강추위속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언제를 쑥쑥 추겨 올린 백두산신궁천년발전소 건설장에서도 기세차게 타올랐다.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현대적인 식료기공장으로 전변된 평양밀가루기공공장, 평양곡산공공장, 평양어린이식료기공공장 등 많은 단위들에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사랑, 과자, 파배기, 콩우유가 생산되고 강계기초식품공장, 수성천종합식료공장, 정방산종합식료공장들에서도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한 질 좋은 식료가공품들이 생산되고있다.  
평양시 광복거리에 경영활동의 정보화, 수자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광복지구사업중심이 새로 꾸러진데 이어 연 건축면적이 3,940여㎡에 달하고 신선했던 물고기장과 말린 수산물물, 명란, 조개, 바다나물을 비롯한 갖가지 수산물가공품들을 판매하는 보통강수산물상점이 문을 열어 련일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완공을 앞둔 만수대거리살림집건설에 뒤질새라 유류교개건공사가 분때있게 추진되어 이 지구가 몰라보게 변모되고있다. 어찌 그뿐이랴. 통일거리에 최신식식비

들이 그뿐이 갖추어진 현대적인 감자가공기지가 일떠설 때 동평양지구에서는 인민외위상장과 종합봉사기지인 창광원식목욕탕이 하루가 다르게 번듯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아버지장군님을 뜻밖에 잃은 때로부터 100일, 장구한 력사에서 100일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길지 않은 이 100일은 공화국의 천만근민이 경애하는 김정일최고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아버지장군님의 유훈대로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내는 보람찬 투쟁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온 순결한 총정교 도덕의리의 100일, 빛나는 위훈과 기적의 100일이었다.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은 크나큰 슬픔과 그리움, 맹세한 울려 100일은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유훈을 꽃피우는 총정의 나날로 끝없이 이어갈것이다.  
본사기자 흥범식

## 그리움의 100일

... 시인도 문필가도 아닌 평안남도 속천군의 평범한 한 주민이 쓴 시 《장군님 오셨다》의 한구절이다. 시에서 뜨겁게 분출된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오늘 그 하나만이 아닌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으로 되고있다.  
아버지장군님을 뜻밖에 잃은 때로부터 100일.

이 나날 한없이 위대한 아버지를 자나깨나 그리며 사는 천만아들딸들의 그리움의 정은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더욱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아도 온 세상이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 비움은것만 같고 저 하늘의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아도 인민의 행복위해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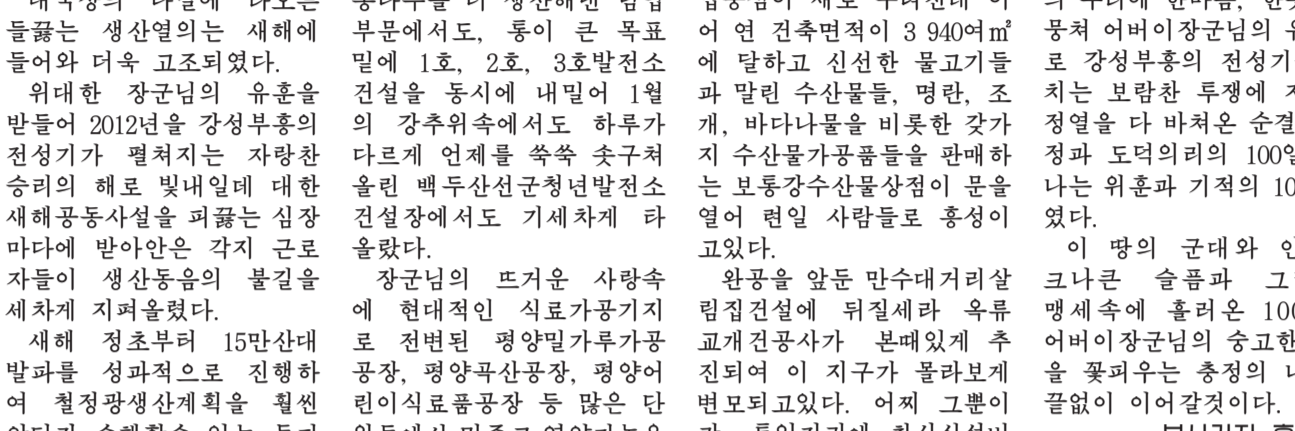
려오는 시골의 어린아이들,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정은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더욱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아도 온 세상이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 비움은것만 같고 저 하늘의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아도 인민의 행복위해 바

려오는 시골의 어린아이들,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정은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더욱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아도 온 세상이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 비움은것만 같고 저 하늘의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아도 인민의 행복위해 바

려오는 시골의 어린아이들,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정은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더욱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아도 온 세상이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 비움은것만 같고 저 하늘의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아도 인민의 행복위해 바

려오는 시골의 어린아이들,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정은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더욱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아도 온 세상이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 비움은것만 같고 저 하늘의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아도 인민의 행복위해 바

려오는 시골의 어린아이들,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정은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더욱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아도 온 세상이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 비움은것만 같고 저 하늘의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아도 인민의 행복위해 바



통해도간식지건설장에서

## 더욱 그리워지는 마음 (1)

이 나라 인민이 믿음에 야 믿을수 없는 비보에 접하고 상실의 아픔속에 곁살을 타치던 12월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날과 달이 흘러 100일을 가까이 하고 있다.  
나라와 인민, 겨레를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불철주야의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길을 걸으시며 교생이랑 교생은 다하신 아버지장군님.

그이를 더 잘 모시지 못한 자책속에 인민이 흘린 피 눈물들을 보면 바다가 될것이다. 그날의 그날, 비의 곡성이 오늘 민족의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속에 장군님을 천만년 영원히 록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령도자를 따라 민족자주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맹세로 되었다.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르느라던 공장들을 찾으실 때마다 노동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와 솟구치는 걱정들을 누르지 못한다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노동자들, 농사를 잘 지으라고 당부하시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던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것만 같아 귀를 장구군 한다는 미국의 협동농민들...  
《그래서 우리는 장군님동상을 모신 이곳을 밤이 지새도록 떠나지 못하고있습니다.》  
고요한 밤, 내달처럼 밝은 여기에서 백두산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르던 이때껏 받아안은 어머니사랑과 온정 더욱 뜨겁게 안겨오고 우리 어머니수령님의 당부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아픈 자책이 가슴을 허비어선 뜻 자리를 뜨지 못하게 됩니다.  
백두산전선위인들을 지켜 선 호위병의 심정으로 동상 앞에서 한밤을 지새운 동태원구역 동신3동의 특류영예군인

김광언가족을 비롯하여 그 누구나 전선위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있다.  
하지만 백두산전선위인들의 동상앞에 차넘치는것은 애라는 그리움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김정일최고령도자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백두산위인들의 필생의 념원이었던 조국통일과 부강조국건설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불갈의 지 또한 뜨겁게 어려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부하시던 대로 경애하는 김정일최고령도자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기어이 백두에서 한 나까지 통일과 기적소리 높이 울릴 그날,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그날을 앞당겨오야말겠습니다.》  
산뜻한 정복투쟁을 한 철 도성 청년들의 힘찬 목소리, 여기에는 우리 인민모두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깃들여있다.  
그 신념, 그 의지를 안고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어머니의 생전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일최고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통일과 민족자주위업의 완성을 위한 승리의 한걸음 꽃피어 이어갈 것입니다.  
본사기자 김유정

### 날이 갈수록 사무치는 장군님생각

12월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었다는 뜻밖의 비보에 접하고 달려온 인민들의 애끓는 곡성과 비애의 눈물이 그렇게 없던 여기 만수대창작사에 오늘도 장군님을 못 잊어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리움과 불타는 맹세의 목소리가 뜨겁게 넘쳐나고있다.

여주신 공화국의 품속에서 반복을 누리며 살아온 로인의 심정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절절했다.  
《위대한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모신 그날을 일일천 추로 바라며 기다려왔는데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었으니 이 슬픔, 이 안락가움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하겠소.  
그저 자나깨나 우리 장군님생각뿐이라우.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버지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진 여기 창작사에 찾아오곤 하지요.》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상을 생각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르는 그의 얼굴에는 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어려 있다.  
이것이 어찌 길순할머니 한사람의 심정만이었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

여주신 공화국의 품속에서 반복을 누리며 살아온 로인의 심정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절절했다.  
《위대한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모신 그날을 일일천 추로 바라며 기다려왔는데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었으니 이 슬픔, 이 안락가움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하겠소.  
그저 자나깨나 우리 장군님생각뿐이라우.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버지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진 여기 창작사에 찾아오곤 하지요.》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상을 생각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르는 그의 얼굴에는 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어려 있다.  
이것이 어찌 길순할머니 한사람의 심정만이었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

여주신 공화국의 품속에서 반복을 누리며 살아온 로인의 심정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절절했다.  
《위대한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모신 그날을 일일천 추로 바라며 기다려왔는데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었으니 이 슬픔, 이 안락가움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하겠소.  
그저 자나깨나 우리 장군님생각뿐이라우.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버지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진 여기 창작사에 찾아오곤 하지요.》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상을 생각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르는 그의 얼굴에는 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어려 있다.  
이것이 어찌 길순할머니 한사람의 심정만이었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

### 완공 단계에 들어선 단전항

철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날과 달이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사랑의 한평생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한생 뿌리가 될 굳은 결심을 안으시고 머나먼 북녘의 두애산으로 보낸 외진 섬마을에 이르러까지 인민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찾아가시며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돌보시었다.

그러 장병들은 뜨거운 감사의 격정을 터치었다.  
언제인가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제야 열차에서 생활하면서 강행군을 하는것이 습관된것 같다고, 명절 날이 가까워와 함께 명절을 즐기며 휴식하고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인민생활문제가 걱정되어 그렇게 할수 없었다고, 인민생활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언제 한 번 집에 들어가 발원함을 잠 못 잊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이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었다.  
내리는 사랑에는 오르는 충정이 따르시어라.

비를 과감히 헤쳐왔다.  
자기 령도자와 피로도 운명도 하나로는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었다.  
내리는 사랑에는 오르는 충정이 따르시어라.

하기에 세계의 수많은 통신, 방송들은 한결같이 《북의 일심단결은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뜻과 의지, 순간도 떨어져 못사는 절절한 그리움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은 그 어떤 핵무기보다 강한 일심단결의 씨앗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공고발전시켜오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경애하는 김정일최고령도자를 모시며 불패의 성세로 더욱 굳게 다져

### 날이 갈수록 사무치는 장군님생각

날이 갈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마음을 안고 매일같이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창작사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속에는 올해 96살 나는 보통강구역 경흥동의 정길순할머니도 있다.  
나라였던 지난날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 남녘의 고향을 떠나는 할머니, 어머니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

여주신 공화국의 품속에서 반복을 누리며 살아온 로인의 심정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절절했다.  
《위대한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모신 그날을 일일천 추로 바라며 기다려왔는데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었으니 이 슬픔, 이 안락가움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하겠소.  
그저 자나깨나 우리 장군님생각뿐이라우.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버지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진 여기 창작사에 찾아오곤 하지요.》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상을 생각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르는 그의 얼굴에는 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어려 있다.  
이것이 어찌 길순할머니 한사람의 심정만이었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

여주신 공화국의 품속에서 반복을 누리며 살아온 로인의 심정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절절했다.  
《위대한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모신 그날을 일일천 추로 바라며 기다려왔는데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었으니 이 슬픔, 이 안락가움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하겠소.  
그저 자나깨나 우리 장군님생각뿐이라우.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버지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진 여기 창작사에 찾아오곤 하지요.》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상을 생각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르는 그의 얼굴에는 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어려 있다.  
이것이 어찌 길순할머니 한사람의 심정만이었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

여주신 공화국의 품속에서 반복을 누리며 살아온 로인의 심정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절절했다.  
《위대한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모신 그날을 일일천 추로 바라며 기다려왔는데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었으니 이 슬픔, 이 안락가움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하겠소.  
그저 자나깨나 우리 장군님생각뿐이라우.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버지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진 여기 창작사에 찾아오곤 하지요.》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상을 생각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르는 그의 얼굴에는 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어려 있다.  
이것이 어찌 길순할머니 한사람의 심정만이었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

## 외출도 하나, 운명도 하나

빈 집에 들어가 발원함을 잠 못 잊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이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었다.  
내리는 사랑에는 오르는 충정이 따르시어라.

빈 집에 들어가 발원함을 잠 못 잊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이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었다.  
내리는 사랑에는 오르는 충정이 따르시어라.

빈 집에 들어가 발원함을 잠 못 잊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이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었다.  
내리는 사랑에는 오르는 충정이 따르시어라.

빈 집에 들어가 발원함을 잠 못 잊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이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었다.  
내리는 사랑에는 오르는 충정이 따르시어라.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들려온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날 인민을 찾아가실 때 타셨던 야전철차의 기적소리야.  
한평생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시던 아버지장군님께서 위대한 심장의 고통을 멈추신 곳이라도 그 야전철차였다.  
나는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으뜸가는 강성대국으로 만들고 우리 인민이 통일된 조국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기 전에 순간도 휴식할수 없다고, 나는 시련의 고비가 수없이 앞을 가로막아도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변함없이 지극처럼 선군장정의 길을 걷고 또 걸을것이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이 야전철차의 기적소리로 온 나라 강산에 메아리쳐간다.  
지구를 몇십바퀴 돌고도 남을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면서도 조국의 남해가에는 이르지 못하신 어머니수령님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불려진 조국의 하루하루가 흘러가는것이 정말 가슴아프다고 마음속 피로움을 터치시던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생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 그토록 만류하시며 나에게서는 지극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 했던데 아무데 때문에 바라고도 않는 동상을 세우려 하니 그 뜻을 이루지 못하리니 우리가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인민들이 동상을 세울것이라고 하신 장군님의 절절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한몸을 초월처럼 깡그리 불태우시며 초인간적 인 의지와 정력으로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 바치신 장군님의 그 불멸의 헌신과 로고가 있

어 이 땅우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가 휘날리는 6.15통일시대가 펼쳐질수 있다.  
분열과 대결로 얼룩져온 민족사에 중지부록을 찍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조국통일업적은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아버지는 김정일장군님을 비롯 우리 겨레를 떠나시지 않았던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계시어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업적은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  
지난해 12월 세한 눈보라를 뚫고 달려온 야전철차의 기적소리, 그 기적소리는 멀지 않은 앞날에 반드시 통일강국의 기적소리로 삼천리강두에 영원히 울려떨어질것이다.  
전도교정우당 중앙위원회 책임부원 최석현

가: 《고향과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과 정은 일반의 감정이지만 그와 생리별한 사람들의 경우 상실의 아픔과 남다른 고통은 여간 아니라 생각한다. 아버지 오영재 선생도 아마 다를바 없었을 것이다.》  
오설악: 그렇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남쪽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몇달 전 운명하는 날까지 어느 한 시도 고향을 잊은적 없었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한생 시인으로 살면서 창작한 1000여편의 작품중에 다수가 조국통일에 대한 작품이다. 할머니의 생일이면 꼭 좋은 옷감을 플라 장만해 놓곤 하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다. 어머니가 없는 자식의 운명은 불행하다고 하였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수령님의 사랑과 은혜속에 작가수업을 거쳤고 30대, 40대를 이으며 부두에서 서정시, 서사시, 가사들을 줄줄이 내놓을수 있었다. 그날 아버지의 창작 활동에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 통일작가로 생을 빛나게 살도록

### — 작가 오영재 선생의 아들과 나는 이야기 —

다리고 차별보살피주신 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아버지가 전쟁의 어려운 길도 걸었고 허리를 조이며 전후복구건설 에도 참가했으며 창작적열정으로 가슴 불태우며 작품을 썼다고, 그는 우리와 함께 애국의 길을 걸어나 사람이 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창작 활동을 걸음걸음 보살피주시었다. 그이의 각별한 믿음과 기대속에 아버지는 조국통일을 노래하는 영웅시인으로, 김일성장계관인으로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생을 보람있게 살았다. 우리 아버지가 남쪽에 있었다면 한 어머니의 아들로도 될수 있어도 인민이 사랑하는 아들로, 조국이 기억하는 작가로 될수 없었을것이다. 《조국통일!》, 《6. 15는 밝은 달》, 《통일을 안아

다리고 차별보살피주신 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아버지가 전쟁의 어려운 길도 걸었고 허리를 조이며 전후복구건설 에도 참가했으며 창작적열정으로 가슴 불태우며 작품을 썼다고, 그는 우리와 함께 애국의 길을 걸어나 사람이 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창작 활동을 걸음걸음 보살피주시었다. 그이의 각별한 믿음과 기대속에 아버지는 조국통일을 노래하는 영웅시인으로, 김일성장계관인으로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생을 보람있게 살았다. 우리 아버지가 남쪽에 있었다면 한 어머니의 아들로도 될수 있어도 인민이 사랑하는 아들로, 조국이 기억하는 작가로 될수 없었을것이다. 《조국통일!》, 《6. 15는 밝은 달》, 《통일을 안아

다리고 차별보살피주신 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아버지가 전쟁의 어려운 길도 걸었고 허리를 조이며 전후복구건설 에도 참가했으며 창작적열정으로 가슴 불태우며 작품을 썼다고, 그는 우리와 함께 애국의 길을 걸어나 사람이 라고 하시며 아버지의 창작 활동을 걸음걸음 보살피주시었다. 그이의 각별한 믿음과 기대속에 아버지는 조국통일을 노래하는 영웅시인으로, 김일성장계관인으로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생을 보람있게 살았다. 우리 아버지가 남쪽에 있었다면 한 어머니의 아들로도 될수 있어도 인민이 사랑하는 아들로, 조국이 기억하는 작가로 될수 없었을것이다. 《조국통일!》, 《6. 15는 밝은 달》, 《통일을 안아

이러는것을 빼지리께 절감하였다.  
남아준 어머니를 떠나 홀몸이 되었어도 걸음걸음 보살피주는 그 손길아래 한생의 복을 다 안은 아버지는 키워준 은혜에 대한 고마움에 사무쳐 한생을 두고 진정으로 되는 송시를 엮어왔다.  
아버지의 한생을 통해 나는 위대한 장군님은 작은 산에도 큰 그늘을 주고 연한 새싹에도 굳은 땅을 뚫고나를 억센 힘을 주는 태양과도 같이 온 나라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안으시고 마음속에 차고마한 그늘이 질레라 세심하게 보살피신 은혜로운 어머니이시고 자애로운 스승이시었다는것을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지금도 그이께서는 아버지가 애라케 소원한 통일이 오면 가족이 아버지의 작품을 통하여 장군님의 품은 온 겨레가 운명과 미래를 맡기고사는 품이며 우리 민족은 장군님의 식솔



#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사진전시회

## 우즈베끼스탄 동포들속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3월 17일 우즈베끼스탄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청사에서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백두산3대장군의 초상화를 모신 전시회장에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과 해외동포사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우리 나라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우즈베끼스탄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회장 주영일, 부회장들인 고대훈, 장정철 등 협회일꾼들과 동포들 40여명, 우즈베끼스탄 립시태리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주영일회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이 다가올수록 그이의 태양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지고 그이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우리 조국과 인민을 구원해주시고 우리 조국의 존엄을 빛내어주시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없이 고매한 인민적품모를 지니시고 한평생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어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셨다.

오늘 경에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엄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계승해나가기에 우리 조국의 미래는 창창하며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의 위업도 빛나게 실현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동포예술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이 있었다. 총창 《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내》와 합창 《우리는 하나》 등 무대에 오른 여러가지 민속무용작품들이 관중들의 열찬을 받았다. 리대성

이 있었다. 총창 《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내》와 합창 《우리는 하나》 등 무대에 오른 여러가지 민속무용작품들이 관중들의 열찬을 받았다. 리대성



절세위인들을 모시어 이 나라 가정, 조국과 인민의 미래는 밝다. 깊은 밤 한자한자 정성담아 《밝은 앞날》이라고 붓글을 새겨가는 중구역 외성동에 사는 선우훈학생. 어린 마음에도 경에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기에 아버지장군님 마련해주신 오늘의 이 행복 레일에 끝없이 이어지리라는 확신이 넘쳐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동창현



얼마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정규진선생이 《내가 본 두 제도》라는 제목의 수기를 보내어왔다. 수기는 어느 제도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사회이고 미래가 밝은 세상인가 하는 것을 자본주의하에서 40여년, 사회주의하에서 20여년

동안 살아오는 과정에 본인이 직접 체험한 사실들을 감명깊게 서술하고있다. 그의 수기를 편재한다.

첫 인상 성과 내 조국의 일을 보여주는 구호라는데는 나는 해설을 듣지 않고도 알수 있었다. 부풀어오르는 가슴, 뜨거워지는 눈시울, 환성이라도 지르고싶은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나는 안내원에게서 구호의 참뜻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그는 선뜻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의 근본정신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모든 일을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는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이 구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김정일장군님의 주체사상과 자주정신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내놓으신 구호라고 설명해주었다.

첫 인상 성과 내 조국의 일을 보여주는 구호라는데는 나는 해설을 듣지 않고도 알수 있었다. 부풀어오르는 가슴, 뜨거워지는 눈시울, 환성이라도 지르고싶은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나는 안내원에게서 구호의 참뜻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그는 선뜻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의 근본정신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모든 일을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는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이 구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김정일장군님의 주체사상과 자주정신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내놓으신 구호라고 설명해주었다.

첫 인상 성과 내 조국의 일을 보여주는 구호라는데는 나는 해설을 듣지 않고도 알수 있었다. 부풀어오르는 가슴, 뜨거워지는 눈시울, 환성이라도 지르고싶은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나는 안내원에게서 구호의 참뜻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그는 선뜻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의 근본정신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모든 일을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는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이 구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김정일장군님의 주체사상과 자주정신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내놓으신 구호라고 설명해주었다.

### 첫 인상

### 첫 인상

### 첫 인상

### 첫 인상

### 첫 인상

내가 의기입복하여 평양 시내에 첫발을 들여놓았을 때였다. 시내입구에 들어서니는 순간 하나의 구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였다. 남쪽에서는 불려야 불수 없었고 들려야 들수 없었던 구호였다. 민족의 넋이 사라지고 남의 정신이 뿌리내린 곳, 제것은 없고 온통 남의것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40여년간 살아온 나는 제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것을 얼마나 예라게 갈망하였던가. 그런데 내가 원하던 그 오구가 바로 눈앞에 성벽처럼 서있는것이 아닌가. 저 구호가 바로 사회주의제도의 본

내가 의기입복하여 평양 시내에 첫발을 들여놓았을 때였다. 시내입구에 들어서니는 순간 하나의 구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였다. 남쪽에서는 불려야 불수 없었고 들려야 들수 없었던 구호였다. 민족의 넋이 사라지고 남의 정신이 뿌리내린 곳, 제것은 없고 온통 남의것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40여년간 살아온 나는 제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것을 얼마나 예라게 갈망하였던가. 그런데 내가 원하던 그 오구가 바로 눈앞에 성벽처럼 서있는것이 아닌가. 저 구호가 바로 사회주의제도의 본

내가 의기입복하여 평양 시내에 첫발을 들여놓았을 때였다. 시내입구에 들어서니는 순간 하나의 구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였다. 남쪽에서는 불려야 불수 없었고 들려야 들수 없었던 구호였다. 민족의 넋이 사라지고 남의 정신이 뿌리내린 곳, 제것은 없고 온통 남의것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40여년간 살아온 나는 제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것을 얼마나 예라게 갈망하였던가. 그런데 내가 원하던 그 오구가 바로 눈앞에 성벽처럼 서있는것이 아닌가. 저 구호가 바로 사회주의제도의 본

내가 의기입복하여 평양 시내에 첫발을 들여놓았을 때였다. 시내입구에 들어서니는 순간 하나의 구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였다. 남쪽에서는 불려야 불수 없었고 들려야 들수 없었던 구호였다. 민족의 넋이 사라지고 남의 정신이 뿌리내린 곳, 제것은 없고 온통 남의것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40여년간 살아온 나는 제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것을 얼마나 예라게 갈망하였던가. 그런데 내가 원하던 그 오구가 바로 눈앞에 성벽처럼 서있는것이 아닌가. 저 구호가 바로 사회주의제도의 본

내가 의기입복하여 평양 시내에 첫발을 들여놓았을 때였다. 시내입구에 들어서니는 순간 하나의 구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였다. 남쪽에서는 불려야 불수 없었고 들려야 들수 없었던 구호였다. 민족의 넋이 사라지고 남의 정신이 뿌리내린 곳, 제것은 없고 온통 남의것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40여년간 살아온 나는 제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것을 얼마나 예라게 갈망하였던가. 그런데 내가 원하던 그 오구가 바로 눈앞에 성벽처럼 서있는것이 아닌가. 저 구호가 바로 사회주의제도의 본

### 금메달에 비끼는 애국의 마음

### 금메달에 비끼는 애국의 마음

### 금메달에 비끼는 애국의 마음

### 금메달에 비끼는 애국의 마음

### 금메달에 비끼는 애국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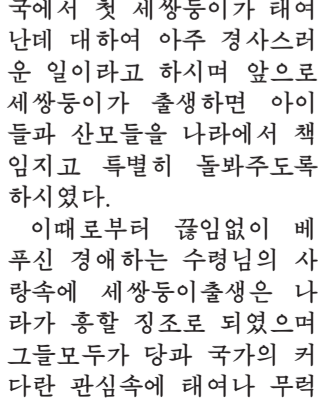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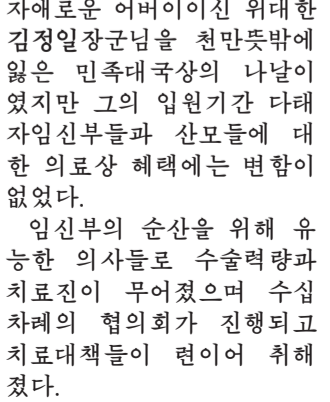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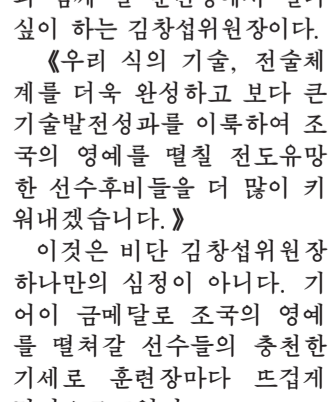
애국은 공민의 신성한 사상감정이며 애국을 떠난 인간은 값없는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삶과 행복의 열람인 어머니조국을 금메달로 빛내어나가는 체육인들 가운데는 평안남도 북창군체육지도위원이었던 김창섭도 일하고 있는 김창섭도 있다. 지난 10여년간 전국청소년 체육학교학생경기대회와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에서 18개의 금메달과 45개의 은메달을 쟁취한 북창군은 체육을 잘하는 군으로 온 나라에 소문났다. 여기에는 김창섭위원장의 숨은 노력도 깃들여있다. 그가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려는 일념을 안고 지난 기간 아글라글 노력해온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이 땅에서 나서자란 사람이려면 누구나 자기를 낳아키워준 고마운 어머니조국을 위해 삶의 뚜렷한 자욱을 남겨야 한다. 그애야 한생을 보람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차디찬 남조선사회에서 살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온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 조국의 고마움에 목매어 자식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외우던 말이다. 땅국의 세월 경성남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갖은 천재와 별시속에 학교앞에도 가보지 못했던 불쌍한 아버지가 품어안아 대학공부를 시켜 어엿한 일꾼으로 내세워준 나라의 은덕을 어린 마음속에 새겨안고 성장해온 김창섭위원장이었다. 《우리 식의 기술, 전술계를 더욱 완성하고 보다 큰 기술발전성과를 이룩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칠 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창섭위원장이 아니라 김창섭위원장의 영예를 떨칠 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창섭위원장이 아니라 김창섭위원장의 영예를 떨칠 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애국은 공민의 신성한 사상감정이며 애국을 떠난 인간은 값없는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삶과 행복의 열람인 어머니조국을 금메달로 빛내어나가는 체육인들 가운데는 평안남도 북창군체육지도위원이었던 김창섭도 일하고 있는 김창섭도 있다. 지난 10여년간 전국청소년 체육학교학생경기대회와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에서 18개의 금메달과 45개의 은메달을 쟁취한 북창군은 체육을 잘하는 군으로 온 나라에 소문났다. 여기에는 김창섭위원장의 숨은 노력도 깃들여있다. 그가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려는 일념을 안고 지난 기간 아글라글 노력해온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이 땅에서 나서자란 사람이려면 누구나 자기를 낳아키워준 고마운 어머니조국을 위해 삶의 뚜렷한 자욱을 남겨야 한다. 그애야 한생을 보람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차디찬 남조선사회에서 살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온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 조국의 고마움에 목매어 자식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외우던 말이다. 땅국의 세월 경성남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갖은 천재와 별시속에 학교앞에도 가보지 못했던 불쌍한 아버지가 품어안아 대학공부를 시켜 어엿한 일꾼으로 내세워준 나라의 은덕을 어린 마음속에 새겨안고 성장해온 김창섭위원장이었다. 《우리 식의 기술, 전술계를 더욱 완성하고 보다 큰 기술발전성과를 이룩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칠 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창섭위원장이 아니라 김창섭위원장의 영예를 떨칠 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창섭위원장이 아니라 김창섭위원장의 영예를 떨칠 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애국은 공민의 신성한 사상감정이며 애국을 떠난 인간은 값없는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삶과 행복의 열람인 어머니조국을 금메달로 빛내어나가는 체육인들 가운데는 평안남도 북창군체육지도위원이었던 김창섭도 일하고 있는 김창섭도 있다. 지난 10여년간 전국청소년 체육학교학생경기대회와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에서 18개의 금메달과 45개의 은메달을 쟁취한 북창군은 체육을 잘하는 군으로 온 나라에 소문났다. 여기에는 김창섭위원장의 숨은 노력도 깃들여있다. 그가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려는 일념을 안고 지난 기간 아글라글 노력해온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이 땅에서 나서자란 사람이려면 누구나 자기를 낳아키워준 고마운 어머니조국을 위해 삶의 뚜렷한 자욱을 남겨야 한다. 그애야 한생을 보람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차디찬 남조선사회에서 살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온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 조국의 고마움에 목매어 자식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외우던 말이다. 땅국의 세월 경성남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갖은 천재와 별시속에 학교앞에도 가보지 못했던 불쌍한 아버지가 품어안아 대학공부를 시켜 어엿한 일꾼으로 내세워준 나라의 은덕을 어린 마음속에 새겨안고 성장해온 김창섭위원장이었다. 《우리 식의 기술, 전술계를 더욱 완성하고 보다 큰 기술발전성과를 이룩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칠 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창섭위원장이 아니라 김창섭위원장의 영예를 떨칠 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창섭위원장이 아니라 김창섭위원장의 영예를 떨칠 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애국은 공민의 신성한 사상감정이며 애국을 떠난 인간은 값없는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삶과 행복의 열람인 어머니조국을 금메달로 빛내어나가는 체육인들 가운데는 평안남도 북창군체육지도위원이었던 김창섭도 일하고 있는 김창섭도 있다. 지난 10여년간 전국청소년 체육학교학생경기대회와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에서 18개의 금메달과 45개의 은메달을 쟁취한 북창군은 체육을 잘하는 군으로 온 나라에 소문났다. 여기에는 김창섭위원장의 숨은 노력도 깃들여있다. 그가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려는 일념을 안고 지난 기간 아글라글 노력해온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이 땅에서 나서자란 사람이려면 누구나 자기를 낳아키워준 고마운 어머니조국을 위해 삶의 뚜렷한 자욱을 남겨야 한다. 그애야 한생을 보람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차디찬 남조선사회에서 살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온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 조국의 고마움에 목매어 자식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외우던 말이다. 땅국의 세월 경성남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갖은 천재와 별시속에 학교앞에도 가보지 못했던 불쌍한 아버지가 품어안아 대학공부를 시켜 어엿한 일꾼으로 내세워준 나라의 은덕을 어린 마음속에 새겨안고 성장해온 김창섭위원장이었다. 《우리 식의 기술, 전술계를 더욱 완성하고 보다 큰 기술발전성과를 이룩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칠 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창섭위원장이 아니라 김창섭위원장의 영예를 떨칠 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창섭위원장이 아니라 김창섭위원장의 영예를 떨칠 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애국은 공민의 신성한 사상감정이며 애국을 떠난 인간은 값없는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삶과 행복의 열람인 어머니조국을 금메달로 빛내어나가는 체육인들 가운데는 평안남도 북창군체육지도위원이었던 김창섭도 일하고 있는 김창섭도 있다. 지난 10여년간 전국청소년 체육학교학생경기대회와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에서 18개의 금메달과 45개의 은메달을 쟁취한 북창군은 체육을 잘하는 군으로 온 나라에 소문났다. 여기에는 김창섭위원장의 숨은 노력도 깃들여있다. 그가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려는 일념을 안고 지난 기간 아글라글 노력해온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이 땅에서 나서자란 사람이려면 누구나 자기를 낳아키워준 고마운 어머니조국을 위해 삶의 뚜렷한 자욱을 남겨야 한다. 그애야 한생을 보람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차디찬 남조선사회에서 살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온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 조국의 고마움에 목매어 자식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외우던 말이다. 땅국의 세월 경성남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갖은 천재와 별시속에 학교앞에도 가보지 못했던 불쌍한 아버지가 품어안아 대학공부를 시켜 어엿한 일꾼으로 내세워준 나라의 은덕을 어린 마음속에 새겨안고 성장해온 김창섭위원장이었다. 《우리 식의 기술, 전술계를 더욱 완성하고 보다 큰 기술발전성과를 이룩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칠 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창섭위원장이 아니라 김창섭위원장의 영예를 떨칠 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창섭위원장이 아니라 김창섭위원장의 영예를 떨칠 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 후대들에게 위한 변함없는 시책

여러 계기들에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은 시내의 거리를 누비며 달리는 공우유차들을 보고 감동을 금치 못한다.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이 어린 공우유차들을 보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아이들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이 나라의 거리가 달리기 시작할지도 근 20년을 헤아린다. 그동안 평양의 약아스, 유치원들과 소학교, 중학교들에 보내진 공우유, 공산유량만 해도 수십만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공우유를 나르는 차들의 총주행거리는 1 520여만km로 시 지구들레를 수백회 돈것과 같다. 수십년세월 단 하루도 변함이 없이 아이들에게 공우유를 무상으로 생산보장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공화국은 두차례나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하였으며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었다. 피눈물의 바다와 허리띠를 쪼여내는 시련의 가시덤불길을 헤치는 속에서도 공우유차는 변함없이 달렸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고립압살책으로 공장, 기업소들이 하나, 둘 밋어질 때에도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단 하루도 공우유생산을 중단하

지 않았다. 각종 어린이식료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이 공장에 공우유생산기계가 꾸러지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의 일이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며 온갖 사랑을 다 기울여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영양가 높은 공우유를 마음껏 먹일수 있도록 이곳에 공우유생산기계를 내오도록 하시었다. 공우유 첫 시제품이 나왔을 때에는 너무나 기쁘시여 하늘을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신 수령님이시다. 그이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린이들에게 공우유만큼은 정상적으로 생산보장해야 한다고 하시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다. 그날에 높은 수준의 공우유종합가공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추기 위해 특별비행기까지 날았으며 평양시내의 모든 도로들에서 공우유차들에 대한 우선적이며 즉시적인 통행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다. 집단체조훈련, 견학 등을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날 때에도, 지어는 몇몇 학생들이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공우유를 실은 차는 현지에까지 어김없이 찾아가고있다. 새 세기 첫해인 주체 90(2001)년 7월 8일 평양 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리주성

김창섭위원장 (왼쪽부터 가운데)

본사기자 박원평

본사기자 박원평

본사기자 박원평

본사기자 박원평

## 평양산원에서 415번째 세쌍둥이 출생

어머니장군님께서 세쌍둥이가 태어나면 그들의 앞날을 제일먼저 축복해주시며 옷과 담요 그리고 우유, 산물을 비롯한 영양식료품을 지어는 시집장가때 때 입을 첫날옷감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선물을 그들에게 한 가득 안겨주시었다.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세쌍둥이들에게 생년월일까지 새긴 상장도와 금메달을 안겨주도록 세쌍둥이들과 산모들이 조선로동당과 국가가 취한 비상조치에 따라 사랑의 한길로 산원의 요람에 안겼고 유능한 의료진들 때문 구급소생차가 방방곡곡으로 달리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조국땅에 무수히 수놓아졌다.

어머니장군님께서 세쌍둥이가 태어나면 그들의 앞날을 제일먼저 축복해주시며 옷과 담요 그리고 우유, 산물을 비롯한 영양식료품을 지어는 시집장가때 때 입을 첫날옷감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선물을 그들에게 한 가득 안겨주시었다.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세쌍둥이들에게 생년월일까지 새긴 상장도와 금메달을 안겨주도록 세쌍둥이들과 산모들이 조선로동당과 국가가 취한 비상조치에 따라 사랑의 한길로 산원의 요람에 안겼고 유능한 의료진들 때문 구급소생차가 방방곡곡으로 달리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조국땅에 무수히 수놓아졌다.



본사기자



# 내 조국의 자랑 선군 12경 (2)

⑦ 범안리의 선경  
범안리의 선경은 가장 아름답고 시원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경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인민들이 신념과 의지의 힘으로 펼쳐놓은 사회주의 농촌선경이다.

황해북도 서흥군의 남서부에 자리잡고있는 범안리는 과일나무밭을 배경으로 멋쟁이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 각종 물고기들이 펄펄 뛰는 양어장이 일매지게 펼쳐진 시원한 앞밭과 어울려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농촌풍경을 펼쳐보이고있으며 집집마다 서흥강의 범안발전소의 전기로 밭도 짓고 난밭도 보장하며 문화정서생활을 누리는 선군시대의 무릉도원이고 사회주의 선경이다.

⑧ 울림폭포의 메아리  
울림폭포의 메아리는 선군으로 이 땅에 펼쳐진 명승의 새 역사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위대한 선군시대의 《대교향곡》이다. 75m높이의 아찔한 칼바람에서 초당 수십m의 평장한 물량이 떨어지는 울림폭포는 황홀한 물안개, 물보라를 일으키며 때로는 하늘에서, 때로는 동굴에서 터져나오는듯 한 신비한 절경을 펼쳐고있다. 선면이 아아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기묘한 골짜기에서 울리는 폭포의 메아리는 10리 밖에서도 들린다. 인적없는 대교의 밀림과 첩첩준령에 가로막혀 수수천년 그 울림조차 외롭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울림폭포는 선군정치의 생활력을 수려하고



희한한 절감상어양어풍경

장엄한 메아리에 담겨 길이 전하고있다.  
⑨ 류다른 공룡경  
류다른 공룡경은 예지중지 기준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로 떠밀어보낸 친만 부모의 심정보다 더 다심하고 각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생겨난 새 공룡경이다.  
병사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공룡식을 많이 먹이도록 하시며 몸소 농농사방법이며 공룡식만드는 방법도 하나하나 배워주시고 전선시찰의 길에서 저장고마다 가득찬 콩마대들을 보실 때면 만사들이 풀려나듯 환히 웃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선군9경은 친딸의 모습을 보시듯 풍살이 오른 녀병사들의 사진을 기쁨속에 보

고 또 보시며 부모들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고, 고향이 먼 병사들의 사진은 비행기편에라도 다 보내주자고 말씀하신 그이의 사려깊은 은정을 전하고있다.  
⑩ 미곡벌의 가을풍경  
미곡벌의 가을풍경은 사랑하는 조국의 푸른 하늘아래 오곡백과 차민치게 하고 고성을 많이 한 인민에게 생상이 부러워하는 유족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이 안아온 선군시대의 풍경이다.  
⑪ 원홍당의 사과꽃절경  
수평선처럼 일망무제하게 늘어진 키낮은사과나무들과 고속도로를 방불케 하는 수실리의 포장도로, 그 사이로 열매없이 파일을 실어나르는 료전기재들, 파일보관고, 현

대적인 과일종합가공공장, 선군의 풍만한 열매인양 청춘과원을 펼친 원홍당의 사과꽃절경을 보고 또 보시며 자신의 로고는 다 잊으신듯 환히 웃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어려와 눈금을 적시게 하는 원홍당의 사과꽃절경은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이다.  
⑫ 희한한 절감상어양어풍경  
수심정보의 부지에 양어못들이 눈부리 아득히 펼쳐진 룡정양어장. 수질좋은 샘물이 초당 수백kg씩 솟아나는 천연기념물 명정원소주변의 명당자리에 일떠선 이양어장은 마를줄 모르는 원소의 풍부한 물을 원천으로 하는 160여개의 양어못들과 철갑상어알개우기 및 새끼고기 사육장, 물러과장, 배합먹이

가공장, 단백먹이가공장, 종합회설 등이 거대한 한쪽의 그림자나 펼쳐져있다. 야외양어못들에는 수만마리의 철갑상어들과 칠색송어, 산천어 등 새 품종의 랑수생, 온수성고급물고기들이 떼지어 흐르고있다.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는 가슴아픈 현실은 세계에 질풍투어나아가는 선군조국의 자력갱생의 기상과 위용을 실증해주고있다.  
선군12경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경도의 고귀한 열매이며 선군시대가 낳은 귀중한 창조물이다. 선군12경은 겨레의 민족적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고 강성국가건설에 펼쳐나선 조국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준경

## 사상의학이 중시하는 제질과 건강 (2)

소양인  
소양인은 비장이 충실하고 신장이 허약하다. 비장부위인 가슴통이 발달하고 신장부위인 방광과 엉덩이가 약하다.  
머리는 작고 등골이 굽고 눈빛이 희고 눈동자가 빛나 정기가 어러어보이므로 시원한 느낌이 든다. 입은 크지 않고 입술이 얇다. 아래턱이 뾰족하고 살이 희미한 윤기가 적으며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다. 말소리는 명랑하나 뽀뽀하지 못하며 흥분될 때 더욱 조리가 없다.  
하체가 허약하여 걸음걸이가 빠르고 경망스럽게 보인다. 걸을 것을 때면 곳을 바라보고 앞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신발이나 바지가랭이에 흠을 묻힌다.  
경솔하여 무슨 일이나 빨리하고 끝내기때문에 일이 거칠고 실수가 많다. 일

에 실증을 잘 느끼며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항상 밖의 일을 좋아하고 자신이나 가정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의리있는 사람도 많다.  
판단력이 빠르지만 계획성이 없으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면 즉시 용서해주고 동정심으로 변한다. 자신의 실수로 잘못을 느낄 때에는 정신적 충격을 심히 받는다. 보기에 는 쌀쌀하나 사귀면 다정다감하고 투철하다.  
일을 하는데 능하고 개척하는데 장기가 있지만 조직하거나 마무리짓는것은 부족하다. 솔직하며 아침하는 일에 매우 협조를 느낀다. 변절하는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성질이 급하고 욕심이 없는 한편 침착하지 못하

며 오락에 소질이 없다. 비장, 위장이 튼튼하기때문에 소화력을 잘 시킨다. 겨울에는 팥수를 마셔야 상쾌해한다. 여름에 얼음과자를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 찬것을 좋아하기때문에 찬약이라야 병을 치료할수 있다. 돼지고기보다 더 좋은것은 없다. 식물성기름이 좋으며 참기름은 약이 된다.  
날살이 보리쌀이 가장 좋다. 피, 쌀, 녹두, 메밀이 좋는데 녹두는 해열, 독을 푸는 작용을 한다. 남새는 배추, 오이, 호박, 가지 등이 좋고 고기는 닭, 참외, 포도, 딸기가 좋다. 생선은 기름진것은 좋지 않고 해삼, 굴, 새우, 게, 복어가 좋다. 고추를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  
본사기자

지구상에는 총 13억 6000만km<sup>3</sup>의 물이 있다고 한다.  
이 물의 97.2%는 바다에 있고 2.15%는 북극과 남극, 고산지대, 빙하로 지구의 음료수량 유엔은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하고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투쟁을 전세계적으로 벌임으로써 날로 부족되어가는 물원천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본사기자

1대 동명왕  
고구려의 시조왕인 동명왕의 이름은 주몽이다. 고주몽은 추모, 도모, 중모라고도 하였다.  
동명왕의 통치기간은 B.C. 277년부터 B.C. 259년까지이다.  
동명왕의 안해는 구려국왕의 둘째딸로 기록되어있다.  
고주몽은 어릴 때부터 뛰어난 무예를 가지고있었는데 7살나이에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쏘는대로 다 맞았으며 날아가는 새도 한 활살에 두마리씩 쏘며 죽었다. 주몽이란 이름도 이처럼 그의 뛰어난 활쏘기솜씨에서 유래되었다.  
그의 재주와 용력이 비상한것을 시기한 동부여왕과 그의 아들 대소가 그를 질투하던 나머지 죽이려고 하자 그의 뜻이 맞는 오이, 마리, 협보 등과 함께 부여를 떠나 구려국땅에 갔다.  
그는 그곳에서 지방자치세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에서는 수천년전부터 파를 많이 심고 식생활에 널리 이용하였다. 파의 원산지는 로씨야의 알타이, 바이칼지방으로 알려져있다.  
《삼국사기》에는 아이들이 파로 피부를 만들어 불며 놀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시기의 문필가 류규보의 시에서 《가냘픈 손인양 무성한 파꽃기 울기종기 많은데 아이들그대 뜰어 피리살아 불어낸다. 솔자리에 좋은 안주가 될뿐 아니라 고기국에 파를 넣으면 맛이 배가하니 그 아니 좋은가》라고 하였다.  
파는 추위에 잘 견디고 자라나는 힘이 강하다. 파는 꿀이 많고 탄수화물에 의해 단맛이 잘 느껴지므로 지짐, 고기탕, 국에 많은 양을 넣고있으며 향기로운 맛과 매운맛이 있는것으로 하여 김치, 무우채, 졸임, 국, 양념장, 나물무침을 비롯한 각종 음식에 조미료로 쓰인다. 고기국에 파를 넣으면 맛을 돋구는것과 함께 고기를 연하게 한다.  
파에는 단백질, 기름, 비타민A, 비타민C가 들어있어 사람의 원기를 왕성하게 해

준다. 옛날부터 절에서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던 다섯가지의 남새 가운데 파가 들어있고 고대인디아의 《마누법전》에 도를 닦는자는 파를 먹어서는 안된다고 한것은 파가 들어간 음식물이 기력을 돋우어 도를 닦는데 방해되기때문이라고 한다.  
파는 위장보호와 화상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발한제(땀내는 약), 수면제로도 이용되고있다. 갑자기 의식을 잃었을 때 파의 즙을 손목부분을 남자는 왼쪽 구멍에, 녀자는 오른쪽 구멍에 꽂아두면 코피를 흘리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이 물고기회를 먹을 때 봄에는 파와 같이 먹고 가을에는 갖과 같이 먹는다고 한것은 바로 파가 생선에 있는 독을 해소시킨다는 것을 알고있었기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옛날에는 파즙을 내어 단지에 넣어 동지부터 하지까지 땅에 묻었다가 꺼낸 다음 그물에 굵, 은이 포함된 청석을 담그면 녹아버리는것을 리용하여 야금술에도 썼다고 한다.  
허성철

단편 소설  
1  
온 나라가 63형 비전향장기수들의 귀환으로 감격과 기쁨에 휩싸이던 2000년 9월 어느날.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나선 몇대의 승용차가 수도의 세브로코요를 개철새라 조용히 거리를 누비며 달리고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미끄러지듯 차체밑을 지나가는 포장도로위에 접점이 남아있는 빨강과 파랑과 노란 꽃잎들과 색종이오리들을 내다보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이의 눈앞에는 눈물을 머금고 차창밖으로 손을 흔들던 통일애국투사들의 모습과 그들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평양시민들의 꽃물결이 그대로 보이는듯만있으시었다.  
63형 비전향장기수들의 귀환은 반세기에 걸쳐 굳어졌던 분리의 장벽에 대파를 구를 내고 조국통일의 전도를 실현적으로 펼쳐보인 력사적인 사면이었다. 바로 이날을 위해 장군님께서 기일이

일곱가지 제일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비라민, 섬유소, 팥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일곱가지 식품으로 사과, 바나나, 양배추, 물고기, 굴, 해삼, 굴, 새우, 게, 복어가 좋다. 고추를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  
본사기자

들국화꽃나발 (1)  
글 양의선  
9월의 또 하루가 시작된다. 지구위에 인류가 태어나 날과 달, 해를 정하고 년대와 세기를 구분해놓을 때 동로과 함께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습관된 휴식과 잠자는 시간에 대한 분배의식도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어머니수령님을 잃은 후 이 필연적인 요구와 의식을 더 더욱 잊고계시었다.  
오늘 새벽에도 집무실을 나서실 때 부인이 몹시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장군님앞에 나섰었다.  
《장군님, 오늘같은 날에야 좀 휴식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인의 권고속에는 간곡하면서도 많은 뜻이 담겨져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좀 쉬어도 괜찮은 날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중대문제에 친필을 남기신 그날부터 그 문건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불면휴식의 로고를 기어이하여 6.15공동선언을 마련하시고 그 실천적인 조치로

## 평양출판사에서 새 도서들을 출판 발행

얼마전 평양출판사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여러권의 새 도서들을 출판하여 내놓았다.  
새로 출판발행된 도서들은 다음과 같다.  
- 도서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제5, 6부)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출판발행된 도서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제5, 6부)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2002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력사적시기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시는 길에서 새기신 조국과 민족, 인민에 대한 사랑의 혁명활동사를 서술하고있다.  
- 도서 《운명의 선택》(1, 2)  
도서 《운명의 선택》(1, 2)은 분렬의 비운이 감돌던 해방후 복잡다단했던 그 시기에 북행길을 선택하여 공화국의 품으로 들어온 문예인들의 운명을 담고있다.  
그들속에는 작가 석용기, 박태원, 조영철, 연극배우이며 영화가인 리단, 영화배우 오함문, 영화연출가 박학, 미술가 정창모를 비롯하여 사람들의 추억속에 새겨져

있는 문예인들이 많다.  
도서는 행복한 운명, 불행한 운명이 라고난것인가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운명을 이끌어주고 빛내주는 행운의 등불을 따라야만 행복한 운명의 주인공으로 될수 있다는 사상을 여러 문예인들의 삶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 도서 《내 마음의 교향곡》  
이 도서는 인터넷신문 《민족통신》에 련재된 재미동포 리준주의 글들을 편집한것이다.  
본사기자

우록교향악단 지휘자이며 단장인 리준주선생은 미국땅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지휘하여 북과 남, 해외동포들속에 널리 알려진 재능있는 재미동포음악가이다.  
리준주선생의 글들은 조선 민족의 한성원으로서는, 민족의 참다운 음악을 위해 투신하는 지성인으로서의 정지와 향시의 토로이고 조국통일을 이루고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떨치는데 기여하는 힘있는 교향곡이기도 하다.  
본사기자



## 고구려왕조표

고구려왕의 이름은 주몽이다. 고주몽은 추모, 도모, 중모라고도 하였다.  
동명왕의 통치기간은 B.C. 277년부터 B.C. 259년까지이다.  
동명왕의 안해는 구려국왕의 둘째딸로 기록되어있다.  
고주몽은 어릴 때부터 뛰어난 무예를 가지고있었는데 7살나이에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쏘는대로 다 맞았으며 날아가는 새도 한 활살에 두마리씩 쏘며 죽었다. 주몽이란 이름도 이처럼 그의 뛰어난 활쏘기솜씨에서 유래되었다.  
그의 재주와 용력이 비상한것을 시기한 동부여왕과 그의 아들 대소가 그를 질투하던 나머지 죽이려고 하자 그의 뜻이 맞는 오이, 마리, 협보 등과 함께 부여를 떠나 구려국땅에 갔다.  
그는 그곳에서 지방자치세

력과 손잡음으로써 처음에 파루부의 우두머리로 되고 이어 구려 5부의 통치자로 되었다.  
고주몽은 B.C. 277년에 나라이름을 고구려라고 하고 종본성에 첫 수도를 정하였다.  
고구려라는 이름에서 《고》는 옛날말로 《솜》, 《수리》인데 이 말들은 모두 높음, 큼, 신성함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려》는 우리 말로 고을, 읍, 구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구려는 높은 곳을 뜻하는 《수리》와 고을을 뜻하는 《구려》가 합쳐져서 높은 나라, 신성한 나라, 구름지대에 있는 나라라는 뜻을 나타낸다.  
동명왕은 명토확장에 커다란 힘을 돌려 왕이 된지 10년만에 부근안에 있던 비류국, 행인국, 북옥저를 통합하였으며 드디어 큰 나라를 만들었다.  
이러하여 그는 우리 나라에서 첫 봉건국가인 고구려의 창건자로 되었으며 강대한 대국의 기틀을 마련한 시조왕으로 되었다.  
B.C. 259년에 부여에 있을 때 결혼하였던 안해 레씨와 아들 유류가 찾아오

자 유류를 태자로 삼았다. 이해 9월 동명왕은 갑자기 병을 만나 40살에 사망하였다.  
그가 죽은 후 통산에 장례지냈으며 그후 고구려가 평양으로 기본수도를 옮기면서 그의 무덤도 오늘의 평양시 룡포구역 통산리로 이전되었다.  
그의 시호(왕이나 제상들이 죽은 후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인 이름)는 동명왕이다.  
2대 유류왕  
유류왕의 통치기간은 B.C. 259년부터 B.C. 236년까지이다.  
3대 여류왕  
여류왕의 통치기간은 B.C. 236년부터 B.C. 223년까지이다.  
4대 대주류왕  
대주류왕의 통치기간은 B.C. 223년부터 B.C. 138년까지이다.  
5대 애루왕  
애루왕의 통치기간은 B.C. 138년부터 B.C. 93년까지이다.  
6대 중해왕  
중해왕의 통치기간은 B.C. 93년부터 B.C. 19년까지이다.  
본사기자